

# 해외의약뉴스

콜레스테롤 약은 다발성경화증의 진행을 늦추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의약품정책연구소

## 개요

고용량의 심바스타틴 약물이 다발성경화증 환자의 뇌위축의 진행을 늦춰준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연구진들은 이차진행성다발성경화증 환자 140명을 2그룹으로 임의 배정해 조코정(80mg/일)과 위약을 투약하였다. 연구결과 통상적으로 환자들의 뇌가 매년 0.6%정도 위축되는 것에 비해 조코정을 투약한 환자들의 뇌축소율은 0.3% 감소하였으며, 고용량의 조코정을 2년 동안 복용한 환자에게서는 뇌위축이 43%가량 감소하였다.

## 키워드

스타틴, 조코정, 다발성경화증

영국에서 실시된 소규모 초기연구에 의하면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고용량의 심바스타틴 약물이 다발성경화증 환자의 뇌위축을 늦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들은 위약을 복용한 환자그룹과 비교하여 심바스타틴 약물인 조코정을 복용한 이차진행형다발성경화증 환자그룹의 뇌위축율이 43% 줄었다고 보고했다.

Jacqueline Palace<sup>1)</sup> 박사는 “이 효과는 잠정적인 것으로 큰 규모의 3상 임상시험이 필요하지만 모든 유형의 다발성경화증환자에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Palace 박사는 “조코정은 용도가 변경된 약물(repurposed drug)로서 이미 좋은 안전성 프로파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가격 또한 저렴하기 때문에 추후 시행되는 연구가 제시된 효과를 입증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사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3월 19일자 온라인 The Lancet 저널에 게재되었다.

조코정은 약물클래스 중 스타틴계로 알려져 있으며, 주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환자에게 처방된다.

조코정이 어떠한 작용으로 뇌위축을 늦추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Palace 박사는 조코정이 염증을 타겟으로 작용해 뇌를 보호한다고 추측했다.

1) 옥스포드 대학병원 상담 신경과전문의/사설공동저자

그러나 Emmauelle Waubant<sup>2)</sup> 박사는 뇌위축율이 낮아진 원인이 조코정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Waubant 박사는 다발성경화증 환자들에게 리피토정을 투여한 연구에서 조코정을 연구한 연구진들이 발견하지 못한 뇌병변의 진행이 늦춰진 것을 발견했다.

게다가 Waubant 박사의 환자들 중 1년 동안 리피토정을 복용한 후에 뇌위축이 줄어든 환자는 없었지만, 현재 이 연구에서는 환자들의 뇌위축이 줄어들었다.

Waubant 박사는 “이 연구결과의 전망은 좋지만 다발성경화증 환자들이 병의 진행을 늦추기 위한 바램으로 이 약을 복용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또한 “이 연구는 소규모 연구이다. 스타틴계 약물이 다발성경화증의 진행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확신하기 전에 다른 연구들을 통해 효과성을 재현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연구결과가 때로는 불확실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임상증상이 치료제를 통해 완화되지 않는다면 약을 복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뇌위축율이 낮아지더라도 이것이 환자들을 위한 임상결과의 향상으로 전환되지 않는다면 이는 유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결과가 사실이라면 이는 대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2상 임상시험에서 Jeremy Chataway 박사<sup>3)</sup>가 주도한 연구팀은 140명의 환자를 두 그룹으로 임의로 배정해 조코정(80mg/일)을 투약하는 그룹과 위약을 투약하는 그룹으로 나누었다.

연구진들은 임상시험 초기에 촬영한 MRI를 2년 후에 촬영한 MRI와 비교해 본 결과 고용량의 조코정을 복용한 환자들의 연간 뇌축소율이 전체적으로 0.3% 낮아진 것을 발견했다.

Chataway 박사는 “일반적으로 진행형다발성경화증 환자들의 뇌는 연간 0.6%정도 줄어들며, 고용량의 조코정을 2년 동안 복용한 환자들은 뇌위축이 43% 가량 줄었다.”고 말했다.

Chataway 박사는 “조코정이 뇌조직 또는 뇌의 혈액순환을 보호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또한 “환자들이 실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조코정이 뇌위축 뿐만 아니라 진행성장애에도 효과가 있어야 한다. 연구진은 이 약물이 장애에 명확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3상 임상시험으로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사는 “콜레스테롤 약의 복용은 치료방법이 없는 이차진행형 다발성경화증의 치료에 대한 첫 단계이다. 그러나 모든 환자들이 조코정의 복용을 시작하는 것을 원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2) 캘리포니아 대학교 임상소아신경학 교수

3) 임상시험 당시 런던 임페리얼 대학 소속, 현재 런던대학교병원 임상 신경과 의사

이 연구에서 조코정이 뇌위축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의사와 환자로부터 보고된 임상증상도 약간은 완화된 것을 발견했다.

다발성경화증의 초기단계에서 환자들은 재발형-완화성 다발성경화증이라 불리는 간헐적인 증상을 경험한다.

10년에서 15년 내에 절반이상의 환자가 이차진행형다발성경화증으로 발전하며, 이 단계의 환자들은 증상이 서서히 악화되고 장애가 증가한다. 연구진들은 현재까지 이차진행형다발성경화증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약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심바스타틴은 조코정의 제네릭 형태로 30정에 5달러에서 10달러 정도의 가격으로 판매되며 메디케어<sup>4)</sup>를 포함한 대부분의 보험으로 보장이 된다.

Karen Blitz<sup>5)</sup> 박사는 “뇌위축이 서서히 진행되면 장애의 진행 또한 서서히 진행 될 것이다. 이것이 핵심이며 우리가 발견하기 원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Blitz 박사는 “조코정 뿐만 아니라 다른 콜레스테롤 약 또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규모의 3상 임상 시험이 완료되기 전에 다발성경화증의 진행을 늦추기 위한 목적으로 조코정을 복용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다발성경화증 환자 중 콜레스테롤이 높은 환자는 조코정의 부가적인 효과 때문에 이 약의 복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 ▣ 원문정보 ▣

[http://www.nlm.nih.gov/medlineplus/news/fullstory\\_145181.html](http://www.nlm.nih.gov/medlineplus/news/fullstory_145181.html)

4) 메디케어(Medicare)란 미국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장 제도로 65세 이상 혹은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한다.

5) 뉴욕 주 이스트 메도우에 위치한 North Shore-LIJ 다발성경화증 센터 관리자